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음 5월 3일) 제23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투자유치 핵심

성과로 기업입주 줄이어
지난해 투자협약 7건 이어
올해 6월 현재 9건 협약
레나인터내셔널 공장 착공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으로 부상되면서 기업들의 투자협약 및 산단 입주와 함께 투자분의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과의 투자협약(MOU) 7건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에만 6월 현재 장기임대용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9건의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중 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하고 2개 기업이 공장을 착공했다.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지난 4월부터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약 1300원/㎡)로 감면함에 따라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이에 투자유치가 더욱 활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임대 가능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10월에 33만㎡(10만평)를 매입·공급한데 이어, 올해 33만㎡, 내년 34만㎡ 등 총 100만㎡(30만평)를 매입·공급할 계획으로 관련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전기차 산업, 의료·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전기차 제조·부품기업의 집적화도 추진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착공한 (주)네오이엔지는 새만금산단 6.6만㎡에 475억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부유체와 에너지를 저장장치(ESS), 태양광 구조물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4월 착공한 (주)레나 인터내셔널도 새만금산단 7.6만㎡에 555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발전시설 제조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유치가 확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함께 새만



현충일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 담아

제64회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전주시 전주군경묘지를 찾은 어린이들이 현화를 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약 220여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전기차 제조기업으로는 처음 투자협약을 맺고 조만간 입주계약을 맺을 나노스(주)는 중국의 체리자동차와 손잡고 새만금산단 33만㎡에 1200억원을 투자하여 반조립 방식의 기업용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고, 57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디스모터스(주), (주)대창모터스, (주)코텍, (주)엘피에스코리아 등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새만금산단 38만㎡에 총 970억원을 투자하고 33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에디스모터스(주)의 전기버스는 이미 기존공장에서 생산되어 투자협약에서 시승행사도 있었고 서울시 등에 공급 중에 있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대창모터스의 소형 전기상용차는 국내 안전인증 및 환경인증을 모두 획득해 새만금 공장 신설과 함께 곧바로 대규모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송파모터스와 한국 건원건설의 합작법인 SNK모터스(주)는 새만금산단에서 연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 입주심사를 마치고,

6월중에 새만금산단 31만㎡에 총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SNK모터스(주)의 투자가 완료되면 연간 10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을 메카로 부상되면서 관련 부품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투자협약 및 산단 입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인버터, 구조물 등 재생에너지 부품업체와 금속 가공산업, 첨단 계량기, 농업용 자재 생산 제조기업 등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이고, 6월중에 입주심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많은 기업의 입주계약과 공장이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분야와 입주 순위에 따른 임대용지 위치를 정하고 올해 매입분에 대한 매입을 서두르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5G시대 대응 ICT기업 간담회

미래 데이터 통신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는 5G 시대를 준비키 위해 전주시와 전북지역 ICT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4일 진흥원 ICT다비스랩에서 ICT기업인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시대 대응'을 주제로 기업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와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와 진흥원이 5G의 상용화에 맞춰 전북지역 ICT기업과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5G대응 관련 정책 및 사업지원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5G 대응에 따른 문제점과 기업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와 진흥원에 각 기업별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올라, 에스파냐' 14일부터 스페인문화주간

정열의 나라, 전주서 만나다

시·주한스페인대사관, 20일까지 열어... 프로그램 다채
월드 타파스데이·플라멩코·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전 등

플라멩코와 영화 등 열정의 스페인문화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와 주한스페인대사관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주시 전역에서 1주일 동안 외국 오리지널 문화에 감흥을 느끼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2019 전주세계문화주간-스페인 문화주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전주세계문화주간의 타이틀은 '안녕! 스페인'이라는 뜻의 '올라, 에스파냐'로 스페인의 문화를 전주에 소개하는 의도에서 붙여졌다.

개막식에서는 플라멩코와 재즈 등 문화주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스페인 대표 공연이 선보이고 전주시의 원으로 구성된 어울림 합창단의 스페인 곡 '에레스 푸'가 합창된다.

문화주간 이틀째인 15일부터는 △국내 미개봉작 위주로 엄선한 스페인영화페스티벌 △스페인 문화의 정수를 담은 '월드 타파스데이' △스페인재즈와 플라멩코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전 등 스페인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라리가(La Liga)에서 후원하고 스페인관광청에서 참여하는 월드타파스데이는 △스페인의 정통음식인 타파스 체험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La Liga)에서 준비한 실물크기의 축구포토존 등 축구체험프로그램 △플라멩코체험 △스페인 특산물 부스 등 약 13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객이 스페인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시티 세병호 야생화언덕에서 열리는 월드타파스데이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저녁시간까지 이어진다.

또한, 15일과 16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스페인영화페스티벌이 진행, 페르난도 코티조의 애니메이션 작품인 '사도(The Apostle)'를 시작으로 △세스 가이오의 '트루만(Truman)' △알렉스 드 라이글레시아의 코미디 '마이 빅 나이트(My Big Night)' △스페인의 히치콕으로 각광받는 알레한드로 아메

나바르 감독의 공포·미스터리 영화인 '테시스(Tesis)' △감각적인 영상미로 각광받은 다큐멘터리 '플라멩코, 플라멩코(Flamenco, Flamenco)' △가죽드라마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Maria and Everyone Else)'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열정의 스페인문화를 대표하는 플라멩코와 스페인의 재즈&스토리텔링도 15일 오후 6시 전주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경험할 수 있다.

1부에서는 스페인 재즈&스토리텔링으로 잘 알려진 에밀리오 파발라 앙상블의 스페인음악과 스토리텔링을 들어볼 수 있으며, 2부에서는 8세부터 춤을 배운 하베르 메리안과 올란타 산티아고가 이끄는 포르타코노 등 축구체험프로그램 △플라멩코춤 공연과 스페인 특산물 부스 등 약 13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객이 스페인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송효철 기자

6일 현충일 관계로 신문은 7일 발행합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